

# 이달 도내 곳곳 체육행사 '풍성'

6월 전북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달에도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등 전국·도내 규모의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일 군산에서 막을 올린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12일까지 열리고,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공도대회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전주 천양정에서 펼쳐진다. 약 5000명이 참여하는 제5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9일 군산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열리고, 제21회 대한불림협회장배전국

금석배 전주고교축구 12일까지  
9일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  
도지사배 태권도 6일 개최 등

불림대회도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에서 펼쳐진다. 도내 규모의 대회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제31회 도지사배 태권도대회가 6일 막을 올리고 제11회 전북이순원장배 축구대회가 8일 전주 덕천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제17회 전북도지사기 시군대학 테니스대회는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고, 도지사배 연합라이딩은 오는 16일 군산 선유도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제27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와 제14회 도지사기 남녀배구대회, 제9회 전북협회장배 국학기공대회, 도지사배 당구대회 등 도 전주와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크고작은 체육대회가 도내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6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U-20 한국축구대표팀의 모습.

## U-20 한국축구, 5일 일본과 16강전 격돌

### '기다려라, 우리가 잡으러 간다'

한국, 경기력 상승 '눈길'  
일본, 주축 2명 부상 낙마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 월드컵에서 도전을 계속하게 된 리틀 태극전사들이 숙적 일본과 외나무다리에서 격돌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대회 16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수십 년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아시아 축구를 씩씩이한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이름값을 했다. 일본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4강 진출로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다. 당시 한국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달미를 잡았다.

두 팀은 본선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F조에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쟁한 끝에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포르투갈과 첫 경기에서 졌지만 남아공과 아르헨티나를 연속 격파하며 2승1패를 기록,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2017년 한국 대회 이후 2회 연속 16강이다.

일본은 B조에서 이탈리아, 에콰도르, 멕시코와 다했다. 에콰도르와 첫 경기를 비긴 일본은 멕시코를 꺾고 승점을 확보했고, 마지막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따내며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흐름은 한국이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대회 초반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았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이강인(발렌시아)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오세훈(아산), 조영욱(서울) 등 공격진이 골맛을 봤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일본은 공격진 줄부상이 시달리고 있다.

장신 스트라이커 다가와 고스케(도쿄)와 고교생 사이트 고키(요코하마FC)가 각각 어깨와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귀국하며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기대주 미야시로 다이세이(가와사키)의 컨디션 난조도 우려스럽다는 일본 현지의 보도가 나왔다. 주장 완장을 찬 공격수 사이트 미츠키(쇼난)가 있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진 탓에 무게감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다.

정 감독은 아르헨티나전 후 "자신감을 갖고 16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인도 "라이벌이지만 하던대로 잘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면서 "질 수도 이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역대 전적에서는 28승9무6패로 한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는 1승1무1패로 팽팽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대회에서 맞붙는 것은 16년 만이다.

2003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 16강전에서 일본에 1-2로 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은 최성국(은퇴)이 선취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이후 사카타 다이스케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았고 연장 전반 다시 한번 사카타에게 골든골을 내주며 탈락했다. 두 팀이 U-20 월드컵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뉴시스



'2019 정읍시장배 어울림태권도대회' 및 '제1회 전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대회'가 지난 2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승우·권창훈, 세리에·프랑스  
다음 시즌 1부리그에서 뛴다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권창훈(디종)을 1부리그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베로나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칸토니오 벤테고디에서 열린 2018~2019 세리에B(2부리그) 승격플레이오프 결승 2차전에서 시타델라에 3-0 승리를 거뒀다. 1차전서 0-2로 진 베로나는 홈에서 대역전극을 일궈내며 한 시즌 만에 세리에A(1부리그) 승격을 이뤘다. 이승우는 이날 교체명단에 포함됐지만,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팀이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승격을 따내면서 다음 시즌부터는 다시 1부리그에서 뛰게 됐다. 프랑스 리그 잔류를 놓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 디종 또한 2019~2020시즌을 1부에서 맞이한다. 디종은 이날 열린 RC 랑스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서 3-1로 승리했다. 1차전서 1-1로 비긴 디종은 2차전 승리로 합계 4-2로 1부 잔류에 성공했다. /뉴시스

## 장애인·비장애인, 태권도로 '어울림'

정읍시장배 어울림태권도대회 성료  
전국장애인체전 전북 선발전과 병행

'2019 정읍시장배 어울림태권도대회' 및 '제1회 전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대회'가 지난 2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첫 어울림 태권도대회로써 도내 초·중·고 학생 약 300여명이 참가해 공인품새(개인전, 단체전 경기), 겨루기 등 실력을 겨뤘다. 개최식에는 유성엽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최낙삼 정읍시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노경일 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상익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 정창년 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장, 기일서 정읍시장장애인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고, 선수단과 장애인 태권도 관계자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에서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 대표선수 선발전도 함께 열렸다.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창년 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훈련하면서 재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이정은, LPGA US여자오픈 우승

'하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데뷔 후 첫 우승이다. 이정은은 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 71·65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